

# 쿠쿠홈시스, 근로감독·압수수색에도 ‘원청교섭 거부’ 논란

노조, 사측에 실질적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 열고 직접 교섭 거듭 요구  
“결정은 본사, 고통은 현장이” 비판 대법원, 설치·수리 노동자 근로자 인정 社측 “위탁계약 따라 서비스 제공”



구분학 대표(사진)가 이끄는 쿠쿠홈시스가 ‘부당노동행위’로 연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회사가 노조와 직접 교섭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쿠쿠홈시스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맺고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위장고용 사례가 의심된다고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도 지난달 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쿠쿠홈시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4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전날 서울 노원동 쿠쿠홈시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재

차 촉구했다.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쿠쿠홈시스 본사라면 왜 교섭은 소사장과 해야 하나”면서 “결정은 본사가 하고, 책임은 소사장이 지고, 모든 고통은 현장의 내추럴다터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쿠쿠홈시스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추럴다터’는 쿠쿠홈시스에서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수리하는 기사들을 말한다.

대법원은 2022년 당시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후 본사인 쿠쿠홈시스는 기존 직영 지점을 소사장 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내추럴다터는 이들 소사장과 고용 계

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9월에는 전국 조직인 쿠쿠지부가 결성됐다. 그러자 본사가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지부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와 수석부지부장을 계약해지했다.

가전통신노조 쿠쿠지회 정재현 수석부지부장은 “1월말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한 후 복직 투쟁을 했고 소사장과 교섭을 통해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 본사가 전산망에서 ‘사번’을 승인해주지 않아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쿠쿠홈시스는 우리의 생존줄인 ‘전산 계정’을 독점하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이자 소사장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부터, 기사들의 사번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본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쿠쿠홈시스 본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쿠쿠홈시스측은 노조의 요청에 대한 회사측 대응 등을 묻는 메트로경제의 질

의에 “회사는 설치 법인과 서비스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조와 회사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쿠쿠홈시스는 쿠쿠홀딩스가 40.55%로 대주주이고 구분학 대표가 20.53%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외에 구분학 대표의 아들인 구경모씨가 4.21%, 구분학 대표의 동생인 구분진 제니스 대표가 2.9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쿠쿠사회복지재단도 1.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쿠쿠홈시스를 지배하고 있는 쿠쿠홀딩스는 구분학 대표가 45.11%로 대주주이고 구분진(15.22%), 구경모(3.15%), 쿠쿠사회복지재단(1.37%) 순으로 지분이 많다. 노조에 따르면 구분학 대표가 지난해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를 통해 받은 결산 배당금 총 303억 원에 이른다.

구분학 대표는 쿠쿠 창업주인 구자신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2023년 당시에는 가맹점에 대한 집단계약해지 및 갑질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귀뚜라미

### 창문형 에어컨

#### 얼리버드 프로모션

구매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 증정

귀뚜라미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2026년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4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구매 이후 리뷰 참여에 따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탁상형 선풍기’ 1대를 증정한다. 여기에 리뷰 작성 고객에게는 ‘귀뚜라미 캐릭터 우산’과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쿠폰’을 제공하며, 포토리뷰 작성 시 ‘한국도자기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은 에너지효율 1등급의 ‘듀얼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해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하다. ‘에코 모드’ 사용 시 일반 냉방 대비 에너지 소비를 약 60% 줄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김승호 기자

# SK네트웍스, 재무 안정 발판으로 AI 신사업 확장

SK일렉트릭 지분 변경 절차 마무리  
민트 매각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차입금·부채비율 낮춰 재무안정 강화

SK네트웍스가 사업구조 최적화 및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SK일렉트릭에 대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의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지난 13일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SK일렉트릭의 최대주주가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 변경된 이후 추가적인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21.4%가 됐다.

이에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 3월

자회사 민트 지분 90%를 450억원의 금액에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중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SK렌터카 지분 전체를 8200억에 매각했다. 무역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글로벌 와이드의 거래 품목을 수익성 높은 화학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2024년 1조 7000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지난해 6000억원 수준으로 줄기도 했다.

SK네트웍스는 이를 통해 대내외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사업 리밸런싱과 운영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연결 기준 5조원대

였던 차입금은 지난해말 1조 8000억원대로 줄었으며, 320%가 넘는 부채비율 또한 15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대대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이와 같은 안정성에 기반해 AI 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별 신규모델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SK인텔릭스는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브랜드인 ‘나무엑스’를 만들어 지난해 10월말 그랜드 론칭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피닉스랩이 개발한 제약산업 특화 AI 솔루션 케이론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 및 판로 확보를 추진 중이다.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어는 기업의 AX 도입에 필요한 AI Ready D

ata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인크로스에선 올해 AI 기반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스텔라이즈(Stellaize)’의 스타터 번들 패키지를 출시하고, AI 배너 제작 자동화 에이전트 ‘리사이즈애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AI 접목 사업모델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SK네트웍스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안정 없는 성장도 없다”며 “AI 전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귀뚜라미 2026년 창문형 에어컨 ‘얼리버드 프로모션’.

## 기술보증기금

### 중동전쟁 여파

#### 에비유니콘 점검

하이리움산업 방문제 피해실태 파악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비유니콘 기업의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기보는 14일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하이리움산업을 방문해 중동 지역 정세 급변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야기-에비유니콘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 실태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설계·제작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4년 에비유니콘에 선정된 이후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기보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야기-에비유니콘 기업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중동 등 해외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LG생건의 상생, 中企 회복력 높이는 자산”

중기부, 용산 LG생건 본사에서 간담회

LG생활건강의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이 중동 전쟁으로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빛을 받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G생활건강의 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LG생건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상생 활동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확산과 중동전

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15개 협력업체 59건의 계약에 대해 약 26억원의 대금을 인상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업체 1만 6000여 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연동제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인상하는 등 협력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한 상생은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한샘, ‘썸페스타’서 역대급 실적 달성

일평균 주문액 19% 늘며 전 부문 성장

한샘이 진행한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축제인 ‘썸페스타’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한샘몰의 구매전환율은 23% 늘었고 ‘리하우스’는 당일 계약·시공 매출이 72% 증가했다.

14일 한샘에 따르면 상반기 썸페스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행사와 비교해 일평균 주문액이 19% 늘었다. 부문별로는 리하우스와 홈퍼니싱, 온라인 한샘몰 모두 최근 2개년(2025~2026년) 내 월간 계약액의 최고치를 달성하며 전 사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한샘몰은 구매전환율이 직전



썸페스타 매장 사진.

행사 대비 23% 증가하며 실구매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방문객 중 실제 결제까지 이어진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썸페스타의 혜택을 기다려온 대기 수요가 행사 시작과 동시에 ‘폭격형 구매’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김승호 기자